

북스타트 꾸러미와 그림책

북스타트 꾸러미에 넣을 책을 고르는 일은 힘들고 까다롭다. 아기에게 첫 술 음식을 떠먹이는 일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몸에 이로우면서도 평생의 식습관과 미각에 이바지할 음식을 골라야 하듯, 영혼에 이로우며 평생의 독서습관과 미감에 이바지할 책을 골라야 한다. 더구나 이 책이 ‘그림책’이기에, ‘우리 그림책’이기에, 그 어려움은 가히 고행이라 할 만하다. 그림책 출판 역사가 길지 않은 우리의 창작 결과물 가운데에서 그림책의 본질을 완성도 높게 구현한 그림책이 드물고 귀하다는 얘기다.

선정 기준과 원칙은 예년과 같으므로 생략한다. 대신, 선정 회의 내내 선정위원들이 거듭 거듭 서로 묻고 대답하며 새삼 골똘히 되새겼던 ‘그림책의 본질’을 따져보자. 무엇보다도 그림책은 시(詩)와 이야기와 그림으로 가득한 예술품이다. 글과 그림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이야기하며 장면을 이어가는 이 독특한 예술품은 무엇보다도 어린이와 청소년과 어른, 즉 세대를 초월하여 모든 독자를 감동하게 한다는 점에서 경이롭다. 부모가 먼저 골라서 읽어보고 감동한 그림책을 아기(를 비롯해 전 세대 누구나)에게 읽어주며 함께 즐긴다는 것이야말로 북스타트의 이념에 정확히 들어맞는 특성이다.

이른바 고전으로 일컬어지는 이름난 그림책의 창작 동기와 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그림책의 본질을 챙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대세세 읽어주고 읽는 명작 그림책 대부분이, 널리 소비되길 바라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선물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주는 선물로서 만들어졌다. 내 아이가 즐거워할 모습을 떠올리며 이야기 짓고 소리내어 읽기 좋은 운율을 담아 글을 쓰고, 내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림을 그려 만든 그림책... 내 아이와 내 손주를 위해 아버지의 재능을 다해 공들여 만든 순정한 결과물이 시대와 세대를 넘어 불멸의 감동을 안겨주는 고전이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곧 그림책의 본질을 구현하는 진정성이다. 그런 그림책이라야 마음 놓고 그림책을 읽는 목적, 곧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다.

<새벽>의 작가 유리 술레비츠는 그림책 작가들에게 묻는다. ‘이야기는 명확한 어조로 표현되고 있는가? 캐릭터(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 또는 그 성격)는 독특한가? 배경은 상세하고 구체적인가? 시작과 결말은 일관성이 있는가? 이야기가 통일된 어조를 유지하고 있는가? 텍스트(글)는 이야기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장면별로 나뉘어져 있는가? 그림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는가? 그림을 통해 이야기가 잘 읽혀지는가, 즉 그림이 내용이나 분위기를 잘 표현하고

있는가? 글과 그림은 통일감 있게 결합되어 있는가? 책의 판형이나 크기, 모양새가 책 내용이나 분위기에 적절히 어울리는가? 책의 각 부분이 조화롭고도 일관되게 전체를 이루고 있는가?’…… 그림책을 출판하고 기획 편집하는 사람, 그림책을 고르는 부모와 교사 모두가 새겨둘 만한 얘기다.

선정 과정, 덜어내기과 더하기

세 군데 지역 선정위원회에서 석 달에 걸쳐 정성껏 읽고 엄중히 검토하여 추천한 그림책을 늘어놓고, 최종 심사위원들은 먼저 ‘북스타트’ 꾸러미에 넣을 영유아 그림책부터 고르기 시작했다. ‘플러스’ ‘보물상자’ ‘책날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글보다 그림 양이 많은 이 단계 그림책이니만큼 자연스럽게 그림이 크게 논의되었다. 그림책을 통해 반복되어 쌓이는 이미지 경험에 의해 아기가 그리는 상상의 질과 양이 결정된다는 삼엄한 진실을 떠올리자, 여러 경로로 검증되어 추천 목록에 오른 그림책인데도 결정적인 오류 요소가 발견되면 과감히 밀쳐낼 수밖에 없었다. 일상 생활공간에서 수염과 털이 보스스한 고양이와 놀며 날아다니는 비구상(非具象) 나비 때문에, 살아있는 동물들 사이에서 사람처럼 웃고 있는 곰돌이 하나 때문에, 나란히 서있는 황소보다 더 크게 그려진 토끼 하나 때문에, 가장자리로 뺏아낸 그림책들이 수북히 쌓이고 쌓여갔다. 시간이 흘러 고개를 들고 보니 그 영예로운 자리에는 열 손가락도 채 안 되는 그림책이 남아 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얼굴로 가장자리 쪽 그림책들을 거둬 되살펴보았지만 이미 발견된 작고 큰 허점만 도드라져 보일 뿐이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선정위원들의 입에서 거의 같은 대답이 한꺼번에 튀어나왔다. “‘아기들이 보는 그림책이라고, 알아보았구나!’”

영유아 그림책이 흔히 저지르는 심각한 오류는 다음과 같다. 펼침 그림의 한 가운데가 신체 및 얼굴을 절반으로 자르는 장면 구성의 오류, 구상 그림과 추상 그림을 뒤섞는 오류, 의인화를 위해 나무 꽃 구름을 비롯한 자연과 과일 야채 컵 등의 사물에 눈 코 입을 그려 넣는 오류, 실물 비례를 무시하는 오류, 귀엽고 예쁘게 그리느라 정확한 형태감과 색채감을 구현하지 못해 생명성을 잃는 오류, 등. 물론 이것은 모든 그림책에 해당되는 관리 사항이지만 유독 영유아 그림책에 유해한 이유가 있다. 사물 인지 기본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아이들에 비해, 순백의 상태인 아기에게 더욱 ‘그림책을 통해 반복되어 쌓이는 이미지 경험이 상상의 질과 양을 깊고 크게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 왜 오류가 되는가. 따로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감동적인 고전 그림책을 거둬 감상하면서 명작에 대한 안목과 감성을 키우는 것, 그러면서 앞서 짚어본 ‘그림책의 본질’을 챙겨보는 것이다.

선정 결과를 내어놓는 마음

북스타트 꾸러미에는 열세 권이, 플러스 꾸러미에는 열여섯 권이, 보물상자 꾸러미에는 스물네 권 그림책이 들어가게 되었다. 빈약하게 보일 수도 있는 이 꾸러미에는 갓 태어난 아기에 대한 사랑 말고는 어떤 것도 담겨 있지 않다. 도서관 현장의 수많은 독자들과 사서 및 관장들이 직접 읽어가며 뽑고, 각계의 전문가들이 거듭거듭 그림책의 본질을 삼엄하게 가늠한 결과 이상의 뜨거운 책임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 만큼 유익하게 쓰이리라 믿는다. 마침 올해는 북스타트 운동 10 년에 이르는 시점이다. 이 운동이 그림책의 발전과 도서관의 발전을 일구었고, 앞으로도 나란히 발전할 것을 믿는다.